

버스 요금

변경안 시행 연기

버스 요금 인상안 시행 연기... 기존 요금 500투그릭 유지



2025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은 하루 4회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 요금은 1,000투그릭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무료 이용 혜택도 종료되고, 동일한 조건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시행이 불투명한 시점으로 연기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시행이 일시적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시민들은 기존 요금인 500투그릭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세·도로

이용료 인상 시행

2025년부터 차량세 및 도로 이용료 대폭 인상



울란바토르시 의회(NITX)는 2025년 예산을 승인하면서 자동차 및 자가 운행 기기의 세율과 도로 이용료를 새롭게 조정하는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차량세는 3배, 도로 이용료는 5배 인상되었으며, 이 규정은 어제(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차량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 프리우스: 108,000투그릭
- 렉서스 570: 564,300투그릭
- 포터: 75,000투그릭
- 랜드크루저 200: 455,400투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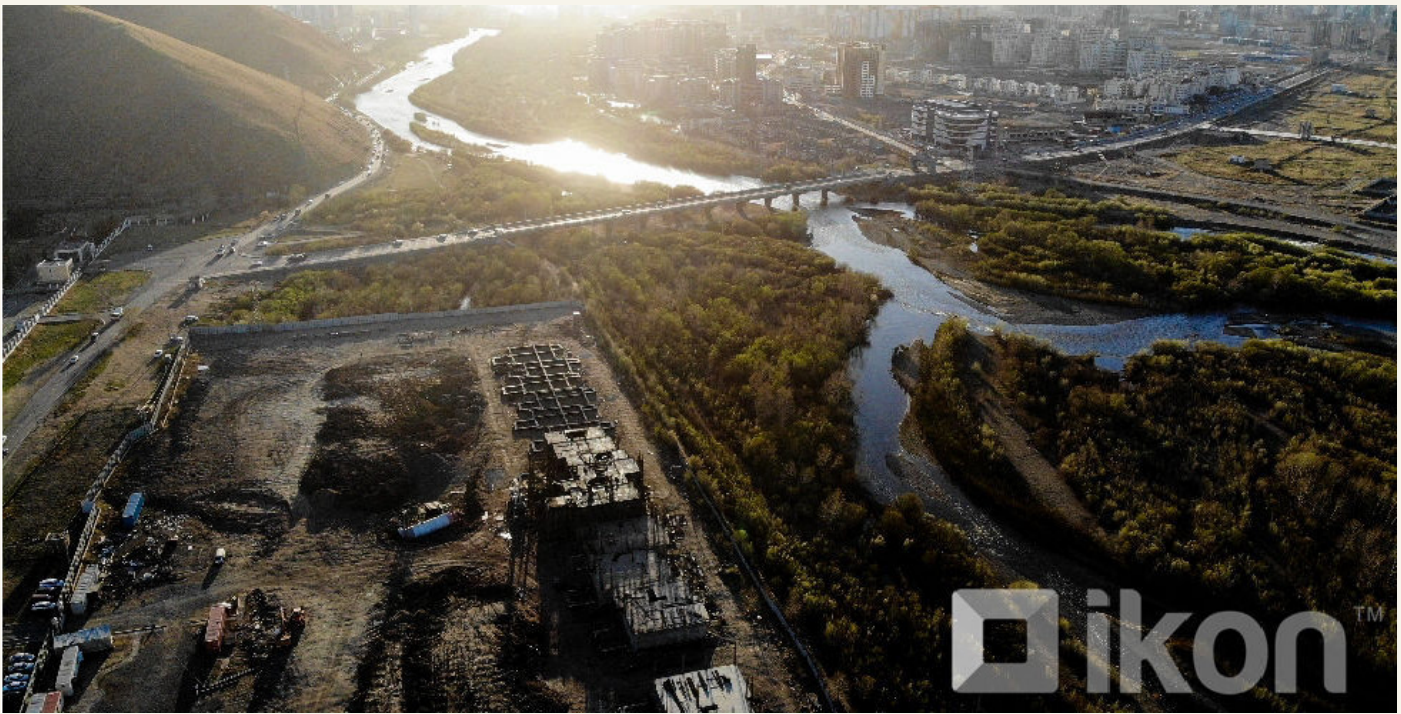
또한 도로 이용료는 차량 엔진 배기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

- 2000cc 이하: 100,000투그릭
- 2001~3000cc: 150,000투그릭
- 4001cc 이상: 250,000투그릭

이번 인상안은 시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톨강 고속도로 건설,

3월 본격 착공



2025년 1월 2일 정부 회의에서 울란바토르 톨강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다. 몽골 국무총리와 20분 도시 위원회 의장 R.에르덴부렌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나라이호의 4차선 도로로 시작하여 바양주르흐 다리를 지나, 쑹기노하이르한 구역의 서쪽을 통해 서부 지방으로 이어지는 32km 길이의 도로다.

이번 프로젝트는 톨게이트 포함 및 도시 내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며, 아시아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울란바토르 외곽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차량 주행 속도를 80~100km/h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3월부터 공사 입찰 및 건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